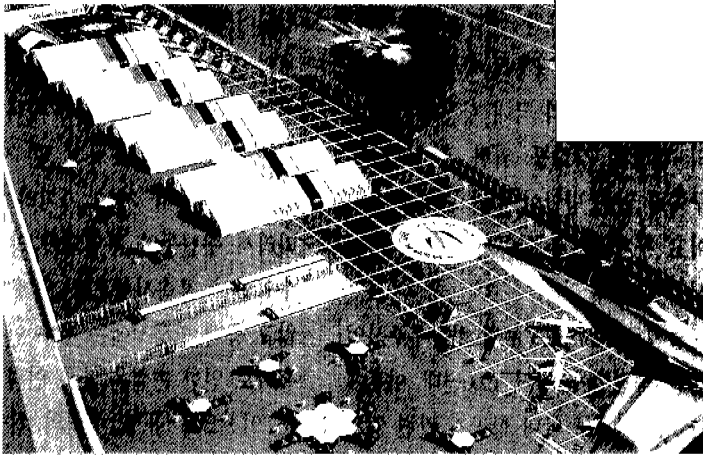


서울에어쇼 '96 어떻게 열리나



이미 참가를 신청해온 항공산업체는 미국의 BOEING사, 영국의 BAe, 프랑스의 DASSAULT사등 외국 우수업체와 삼성항공, 대우중공업등 국내 항공기업체를 비롯 총 90개 업체에 이른다. 접수마감

까지는 200여개 업체의 참여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 첫 국제대회로서는 보기 드물게 성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기 전시회에는 최신에 조 기경보기로 개조중인 B-767기가 세계 최초로 공개전시될 계획이며, 캐나다의 CHALLENGER 604 민간 여객기등의 참가가 확정되었고, 프랑스의 RAFALE, MIRAGE-2000, 美 공군의 B-2, F-14, F-15, F-18등 국내에서의 민간공개가 처음인 다수의 항공기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또한 전시회에는 SU-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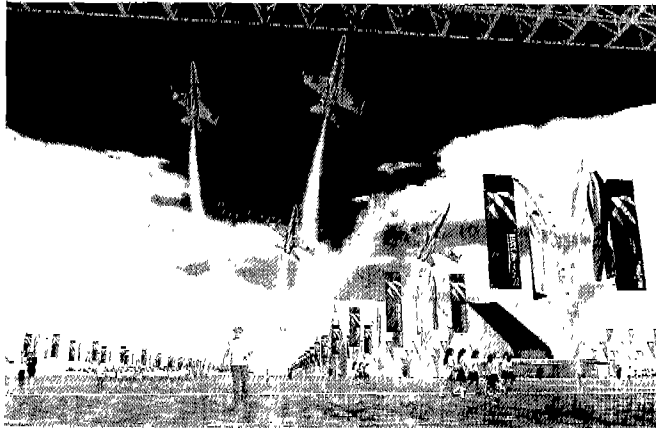
서울에어쇼 '96 공동운영본부(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오는 10월 성남 비행장에서 개최되는『서울에어쇼'96』행사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가 밝힌 행사계획은 국내외 항공업체 유치 현황과 진행사항, 비행팀 초청계획, 시설물설치, 외국내빈 초청계획 등이다. 설명회에서 국내 최초의 국제 에어쇼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방부·통상산업부에 대해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군본부와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군 총합적 조

직체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세기 항공우주 선진국 10위권 진입과 방위산업 육성 및 미래 전략형 공군력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에어쇼는 국민적 관심제고와 정부 차원의 적극지원을 위하여 지난 3월초 국무회의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으며, 李壽成 국무총리가 명예대회장에, 이양호 국방부 장관과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이 공동 대회장으로 선임되어 국가적 차원의 행사 추진을 독려해 왔다.

SU-35, MIG-29 등 러시아 항공기의 참여도 예상되어 서방 항공기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의 항공기가 한반도에 전시되는 최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럼은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면은 중이비행기, 비행기의 동체, 양날개를 상징하는 새의 모습으로 형상화 되었고, 한국의 대표색인 황·청·적색을 사용하였다. 이

가을의 푸른 하늘

을 수 놓게 될 전문 곡예비행팀은 현재까지 신청된 호주 1개, 미국 6개팀으로 행사운영본부에서 3차례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경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차로 미국의 SIERRA ACES TEAM이 선정되었는데 시에라에이스팀은 PITTS S-2B 복엽기 37편제 곡예비행팀으로 비행시간 1만시간 이상의 베테랑 조종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최초의 복엽기 곡예비행을 선보이게 된다. 그 외에도 전세계 최소형 제트기인 "마이크로 제트"로 구성된 FREEDOM TEAM, 세계 곡예비행 경연대회에서 2회나 최우수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는 EXTRA-300 2기 편제의 STAR TEAM 등이 신청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기간 중 공군사관학교 주

관으로 롯데월드 호텔에서 개최되는 항공우주 심포지엄은 국내외 항공 관계자 12명이 참가하여 "2000년대 안보환경 변화와 항공력의 역할", "한반도 주변국의 항공우주력" 등을 논의한다.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TECHNO-MART는 행사장내 테크노마트관에서 열리며, 국내외 석학 20여명이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관련기업의 신기술 설명 및 기술상담을 통한 구매등이 이루어 진다.

한편 행사운영본부는 국내외 관람객의 숙박과 교통편의를 위하여 성남 비행장 인근 및 서울시의 숙박시설과 진입로 공사, 주차장 조성등이 관계부처 협조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어쇼 '96의 상징인 엠블

은 21세기 세계 항공산업의 중심국을 향해 나아가는 한국 항공산업의 비전과 국가항공력의 힘찬 비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규모 행사장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컴퓨터 그래픽의 조감도가 공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행사운영본부는 매 2년마다 개최될 서울에어쇼는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행사로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이번 『서울에어쇼 '96』 행사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국제항공 축전으로 오는 10월 21일-27일까지 성남 비행장에서 열리게 되며 국내외 내빈 약 500명과 관람객 100만명이 참관할 예정이다.